

## 울산 남구장학재단, 우듬지 인재·어학연수 장학생 77명

등록 2026.05.15 16:44:11



[울산=뉴스시스] 15일 울산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남구장학재단 이사회가 개최된 가운데 재단 이사장인 서동욱 남구청장이 이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(사진=울산 남구 제공) 2026.05.15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울산=뉴스시스] 안정섭 기자 = 울산 남구장학재단은 15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남구장학재단 이사회를 열고 우듬지 인재 키움 장학생 17명과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60명을 각각 선발했다.

남구장학재단에 따르면 우듬지 인재 키움은 수학, 과학,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대학 졸업 때까지 장기간 지원하는 성장형 장학사업이다.

성적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활동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6명, 대학생 6명 등 모두 17명을 선발했다.

학생들이 자기계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학생 200만원, 고등학생 300만원, 대학생 400만원의 우듬지 장학금을 연간 지원한다.

이와 함께 총 3억63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60명에게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.

학생들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.

남구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600여명의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져왔다.

남구장학재단 이사장인 서동욱 남구청장은 "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 중"이라며 "앞으로도 소중한 지역 인재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yoha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